

ESCO, 그 의미를 생각하며

내가 ESCO사업에 동참하게 된 지 어느덧 4년의 시간이 흘렀다. 처음에는 ESCO란 단순히 에너지절약기업의 약자로만 알았던 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에너지서비스 기업의 약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에 와서 돌아켜 보면 그것은 ESCO기업이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중점을 두어서는 부족함이 있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뒷받침 되어야만 진정한 에너지 service 기업으로서 자격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나만의 에피소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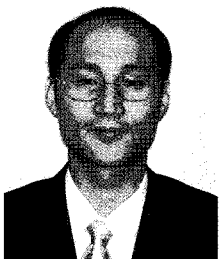
가장문제시되는 점의 하나는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연하게 된다는 점이다. ESCO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치고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어디에 있겠냐고 반문하겠지만, 대다수의 ESCO가 눈앞의 입찰 및 공사수주를 위하여 적정한 견적가를 제출하지 않고 낮은 가격에 경쟁적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을 어느 ESCO도 부인하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초창기 그다지 많지 않았던 ESCO기업의 수도 지금은 어느덧 160여개 가까이 등록되었으며, 그 활동영역 또한 단순

한 조명개체에서 보다 규모 있고 다양한 기술력이 필요로 하는 분야까지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그 모든 등록업체가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업만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ESCO가 무엇인가 그 근간이 탄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많은 ESCO를 만나 보았을 때 그 업체들이 ESCO등록을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 연유를 몇 가지 들자면, 단순히 입찰조건에 ESCO란 조건이 있어서가 그 한가지이며,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의 활용, 경쟁업체의 영업 방어차원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러나 에너지절약사업이라는 기본적 목표를 가장 먼저 꼽는 업체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 김 심규정 부사장 화인테크(주)

社一言

이처럼 ESCO 중 많은 수의 기업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않음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등록사유가 있음을 인지하기 이전에) 그 결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더욱 우려할 만한 문제점들을 야기시킨다는 점이다

그 예로 기업과 사용자, 공단, 은행에 대한 메커니즘의 이해와 추천서류 작성능력의 부재로 ESCO사업의 진행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과, 이 같은 효율성 저하는 ESCO 담당직원의 잦은 교체와 맞물려 ESCO사업에 대한 관리경험이 누적될 수 없는 시스템적인 문제점들을 야기하여 ESCO의 전문화를 저해한다는 점이다.

그밖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문제시되는 점의 하나는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연하게 된다는 점이다.

ESCO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치고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어디에 있겠냐고 반문하겠지만, 대다수의 ESCO가 눈앞의 입찰 및 공사수주를 위하여 적절한 견적가를 제출하지 않고 낮은 가격에 경쟁적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을 어느 ESCO도 부인하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 지려고 하면, 업체자신의 투자 및 개발 뿐만 아니라 공사견적 또한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저가에 낙찰받아서 공사를 수주한다면,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혹 있을 수 있는 사후하자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익금을 넘어선 사후손실이 발생되고, 더 나아가, 정상적인 환수금의 회수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의 근본적인 안위가 흔들리는 극단의 경우에 까지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성과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지” 부재의 영향은 ESCO의 인적, 물적투자 및 기술력 증진에 악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의 부실과 심하게는 기업부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의 헛점 및 ESCO사업에 대한 시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ESCO 전체에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이미 공단 및 협회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160여개 ESCO 스스로의 올바른 자각과 반성이 아닌가 한다.

지금 당장의 공사수주보다는 자기계발과 장기적인 관리에 역점을 두어, ESCO가 보다 건설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며, ESCO 서로간에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 질 때 ESOC의 미래가 밝을 수 있음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 또한 이 글을 빌어 우리회사가 이같이 노력하는 ESCO의 하나가 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